

‘경량 패딩조끼’ 남성 직장인 유니폼 됐다

실용성·보온성에 가성비 갖춰 ... 30~40대에 인기

이마트 전년비 242%, 롯데·광주신세계 매출 4배 ↑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롱패딩 열풍’이 불고 있다면 직장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외투 속에 가볍게 걸쳐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조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옷 입을 줄 모르는 ‘아재’(아저씨를 낮춰 부르는 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조끼 제품이 직장인들의 필수품으로 유행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남성 구스다운’(거위털) 경량 패딩조끼 3종(국민베스트·V넥베스트·보머베스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2% 신장했다. 판매량도 352.5% 증가했다.

남성용 경량 최근 2년간 -6.6%, 8.7% 신장에 머물렀었다는 점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최근 한 달간 유니클로와 빈폴, 나우 등 남성 캐주얼 브랜드 매장에서 경량 패딩조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4배가량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두께는 얇으면서도 보온성은 좋아 코트나 정장 자켓 안에 입으려는 남성들이 많이 찾는다”며 “활동성도 좋고 굵빠보이지도 않아 20대 고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주)광주신세계도 전체적인 겨울점퍼 매출이 지난해보다 5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경량 패딩조끼의 매출도 2~3배 증가

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량 패딩조끼를 찾는 주고객은 30~40대 남성 직장인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실용성과 보온성, 가성비를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량 패딩조끼는 소매가 없어 니트나 가

디건을 입었을 때와 비교해 활동하기가 편하고, 지퍼나 단추가 달려 있어 입고 벗기도 수월하다.

또 오리털과 거위털 등으로 제작돼 얇은 두께에 비해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니트형태로 만들어졌던 과거 조끼의류와 달리 경량 패딩조끼는 일반 정장차림이나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 수십만원의 호가하는 패딩점퍼에 비해 4만~20만원 선으로 저렴하지만 오히려 실용성은 더 뛰어나다는 점도 인기 물이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량 패딩조끼가 인기를 끌기 전 중년 남성직장인들이 주로 찾았던 남성 카디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자 의류업계도 카디건 대신 경량 패딩조끼 물량을 늘려가는 분위기다.

의류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는 비교적 추위가 늦게 시작됐음에도 경량 패딩조끼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강추위가 시작되면 가볍고 활용도가 높은 경량 패딩조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남성복 브랜드 나우(NAU) 매장에서 고객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량 패딩조끼를 입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국 전통주 다양한 정보 한눈에 본다

aT, ‘더솔댓컴’ 오픈

양조장·품평회 등 담겨

한국 전통주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가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전통주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우리술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더솔댓컴’(www.thesool.com)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더솔댓컴에서는 전통주 갤러리, 찾아가는 양조장, 우리술 품평회 등 농식품부와 aT에서 지원하는 전통주 주요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통주 최신 이슈 및 동향정보와 우리술 카드뉴스, 한컷 만화 등 전통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된다.

홈페이지 메뉴를 살펴보면,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최신 갤러리 소식과 함께 이달의 시음주를 소개하고, ‘찾아가는 양조장’에서는 전국 30개 양조장의 정보를 지역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우리술 품평회’에서는 수상 제품들을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술 찾기’에서는 탁주, 약주, 증류주, 과실주 등 전국 양조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술에 대한 종합 정보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전통주 판매처’에서는 온·오프라인 전통주 판매처와 전통주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통신 판매가 허용되면서 크게 늘고 있는 온라인 소매통의 판매 채널과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전



통주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 손쉽게 사이트로 접속해 다양한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전통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며 “더솔댓컴이 전통주를 널리 알리는 종합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청소년 3명중 2명 “롱패딩 갖고 있거나 곧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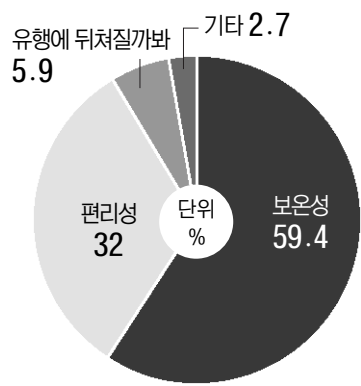
알바천국, 3897명 설문

‘롱패딩 열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경우 3명 중 2명이 이미 갖고 있거나 구입할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0대·20대 회원 38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3%가 이미 롱패딩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의 23.1%는 ‘조만간 구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젊은층 대다수가 롱패딩 유행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롱패딩 구매 이유로는 보온성(59.4%)과 편리성(32.%) 등을 꼽았으며,

■롱패딩 구입 이유



‘없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라는 응답은 5.9%였다.

그러나 롱패딩 유행 등에 따른 소비

부정적이라고 밝혀 긍정적이라는 의견(47.1%)보다 다소 많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개개인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40.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25.4%)과 ‘상술 같아서’(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해서’(58.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롱패딩과 같이 10·20세대에서 유행하는 물건에 대한 관심은 상당수 구매로 이어진다”면서 “실제로 응답자 65%가 유행 때문에 물건을 산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까지 했다는 응답자도 20.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홀푸드 가격 내린다면 아마존

세일상품 적어 되레 1% 올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 8월 식료품 체인점 홀푸드를 인수하고는 대대적 세일 공세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고든헤스킷은 5일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의 홀푸드 매장에서 110개 품목의 가격이 9월 이후 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3개, 내린 품목은 10개였고, 나머지 87개는 동일했다.

보고서는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요인은 세일 품목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지난 6월 홀푸드 인수를 선언하고는 월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전면전을 예고했다.

특히 신장개업 첫날인 8월 28일부터 바나나, 달걀, 연어, 소고기, 아보카도, 사과 등을 대폭 할인 판매하겠다고 홍보해 매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었다.

/연합뉴스

강추위에 ... 내복·잠옷 불티난다

‘파자마 파티’ 유행도 한몫

G마켓 전년비 50~206% ↑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온 이번 겨울, 내복과 잠옷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온라인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지난 한 달(11월 4일~12월 3일) 내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고, 전월과 비교하면 331% 급증했다. 발열내의 매출은 작년보다 14% 늘었고, 전월보다는 276% 뛰었다.

특히 잠옷의 인기가 눈에 띈다. 커플 잠옷 매출은 작년의 세 배 이상인 206% 늘었고, 전월보다는 94% 증가했다.

상하세트 잠옷은 작년보다 39%, 전월보다 45% 매출이 늘었다.

11~12월은 연중 내복과 잠옷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로, 최근 추위에 매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

다. G마켓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간 판매된 내의는 연간 매출의 5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잠옷 판매 비중은 34%였다.

가정에서 잠옷을 입고 편히 즐기는 서양식 홈파티인 ‘파자마 파티’가 유행하고, 연예인들이 리얼리티프로그램 등에 잠옷을 입은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면서 젊은층도 잠옷을 찾고 있다.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다.

의류브랜드 스파오의 ‘쌍구 잠옷’은 지난 여름 출시 당일 30분 만에 모두 팔려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등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최근 출시된 수면 내의 재질의 겨울용 쌍구 잠옷은 예약판매를 실시했으며, 출시 당일 만나질 만에 2만장 가까이 판매되는 등 또 한 번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